

[ 사회 ]

# 3년간 똑같은 시험문제 이월금으로 교직원 회식

## 광주교육청, 업무 부담처리 190건 적발

‘3년간 똑같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규정에 없는 상을 남발하고, 교육과정 기준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상반기(1월 1일~6월 31일)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종합감사 40곳 ▲부분감사 35곳 ▲기감감사 298곳 등 총 380곳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190건의 업무부담처리 사례를 적발해 151건, 281명을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업무부담 처리된 사례는 A고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기고사 1학년 과학 문항 18개 중 10개, 2학년 체육 문항 20개 중 19개를 중복 출제했다. B기관은 매년 40명의 학생들에게 통합된 시상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교육감상을 수여했으며, C고는 지난 2006학년

도 기준 수업시수에서 1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회계분야에서는 D교가 이월금을 교직원 친목도모 회식비로 지출하고 과지급된 가족수당을 분청 세입으로 남부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E고와 F고 등은 수확여행 위탁업체 선정시 입학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했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각 목(目)별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

급식분야에서 G고는 급식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 확인 없이 대금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 밖에 감사대상 학교 교장 20명은 상급 기관장인 교육청의 허가 없이 적게는 한차례에서 많게는 7차례 휴가를 갔으며 I고 직원 중 일부는 5년간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정성필기자 camus@



“2008 광주아시아인권학교”에 참가한 아시아 12개국 25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11일 성공회대 양관석(앞 줄 가운데) 부총장의 첫강의를 들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정신 배우러 왔습니다”

## ‘아시아 인권학교’ 12개국 25명 입학식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나라에서 어떻게 경찰의 촛불 집회 강경진압 같은 국가 폭력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발로 밟고, 소화기를 마구 뿌려대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프랑스 상·29·인도네시아)

대만의 시민단체 ‘2·28사건 기념기금회’ 소속인 나이웨이 쉐(27)씨는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서 세우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대 규모로 이뤄지는 등 5·18과 관련한 한국의 과거 청산 과정을 배우기 위해 왔다”며 “민주·인권 도시 광주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8사건은 1947년 대만 군부의 강제집압으로 2주간 2만8천여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이다.

스리랑카 ‘실종자 유가족협의회’에서 온 피티야 제다라(35)씨는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를 통해 스리랑카

의 현실을 알리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이 지난 2005년 개설한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올해로 5회 째를 맞는다. 지금까지 87명의 아시아 인권 활동가들이 학교를 거쳐 갔으며,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광주정신’을 퍼뜨리고 있다.

25명의 참가자들은 3주 동안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비롯한 세종연구소 백학순 위원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보’, 전남대 조지 카치아파카스 교수의 ‘미국 6·8세대가 본 5·18’, 아시아의 도시민권과 주거복지’ 등 강의의 소화를 한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유엔 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모하메드 나지르 카리미(29)씨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도시에서도 진행해 더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 한국 민주화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나라에서 어떻게 경찰의 촛불 집회 강경진압 같은 국가 폭력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발로 밟고, 소화기를 마구 뿌려대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프랑스 상·29·인도네시아)

대만의 시민단체 ‘2·28사건 기념기금회’ 소속인 나이웨이 쉐(27)씨는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서 세우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대 규모로 이뤄지는 등 5·18과 관련한 한국의 과거 청산 과정을 배우기 위해 왔다”며 “민주·인권 도시 광주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8사건은 1947년 대만 군부의 강제집압으로 2주간 2만8천여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이다.

스리랑카 ‘실종자 유가족협의회’에서 온 피티야 제다라(35)씨는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를 통해 스리랑카

## 정윤재 前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

기 부장판사)는 11일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한 1

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 사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 준 대가로 2006년 12월31일 김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스

## 사설 리조트 수련회 39개교 주의 조치

### 일선학교 “학생들이 원해서 인데...” 불만

“인증된 곳은 재미가 없다는 데 어떡합니까.”

광주시내 초·중·고교 39곳이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서 수련활동을 해 주의 조치받은 데 대해 일선 학교에서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의 수련 활동 실무지침을 어기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시되지 않은 사설 리조트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한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9교 등 39개 학교 교장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학생 수련활동은 수련교사를 갖춘 교육청 산하 교육원이나 야영장, 일선 자

체 수련관, 국립공원 야영장 등으로 한정돼 있다. 광주에는 광주청소년수련원, 직업자수련원, 5개 구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주의 조치를 받은 학교의 학생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화순 K리조트, 나주 J리조트 등에서 1~3일 가량 수련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된 수련시설이 대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사설 리조트는 각종 물놀이 기구들이 있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 중 하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명백한 규정 위반이어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영어방송사 설립 반대”

### 광주전남 민연련

광주전남민주연립(민연련)이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인 광주 영어방송사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민연련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주

시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시민 협회를 남비하는 영어방송사 도입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어몰입교육의 추진주체가 광주시라면 영어라디오 방송사가 시청홍보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광주에 살고 있는 대부분 국민이 동남아 출신인데 영어보다 다문화 가정의 한글을 배우게 주는 한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필기자 kps@kwangju.co.kr

**8월 12일 (음 7월 12일)**

전통·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었다.

◇전국날씨

광주	한 두차례 비	25~31℃
포항	한 두차례 비	25~30℃
서울	한 두차례 비	25~29℃
부산	한 두차례 비	25~29℃
대구	한 두차례 비	24~31℃
대전	한 두차례 비	24~29℃
충주	한 두차례 비	24~29℃
청주	한 두차례 비	23~31℃
전주	한 두차례 비	25~31℃
제주	한 두차례 비	25~32℃
목포	한 두차례 비	24~31℃
해남	한 두차례 비	25~29℃
순천	한 두차례 비	24~29℃
영광	한 두차례 비	23~31℃
영암	한 두차례 비	25~29℃
함평	한 두차례 비	24~29℃
담양	한 두차례 비	25~31℃
고성	한 두차례 비	25~31℃
진안	한 두차례 비	24~31℃
완주	한 두차례 비	25~32℃
남원	한 두차례 비	24~31℃
홍성	한 두차례 비	23~2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10:02 썰물 < 05:03  
목포 밀물 < 23:52 썰물 < 16:11  
여수 밀물 < 05:40 썰물 < 00:37  
여수 밀물 < 19:11 썰물 < 11:49

▲해돋이 05:50 ▲해질 19:25 ▲달돋음 16:25 ▲달질 00:59

◇주간날씨

날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날씨						
최저/최고	25/31	24/32	24/31	24/31	25/32	25/31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광주·전남서 영호남 청소년 화합 마당

### 여름캠프 잇따라 개설

광주와 전남도가 (재)동서교류협력재단과 함께 영호남 청소년들이 상대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여름캠프를 잇따라 개설한다.

광주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수련원에서 영호남지역 초·중·고교생 125명을 초청해 ‘영호남 청소년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한다.

광주시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특강, 공동체 훈련, 화합마당 등을 비롯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무등산·가사문화관 탐방, 광주시청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특히 12일 입소식 행사에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전 국민의 관심

을 끌고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영호남 청소년들이 ‘독도 영유권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12일부터 사흘간 목포청소년수련원과 강진 다산초당 및 청자박물관, 목포 국립해양박물관 등 주요 문화관광지에서 ‘영호남 청소년 한마음캠프’를 운영한다.

전남도 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에는 영호남 13개 시·군 중학생 88명이 참여해 문화유적지 답사, 수상활동 등을 통해 양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화합의 기틀을 다진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은 지난 2000년 3월 영호남 8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30여원을 공동 출자, 동서화합을 위한 민간단체 사업들을 발굴·지원해오고 있다. /정성필기자 who@kwangju.co.kr

## “자살하려 마약 복용

### ‘투약’에 해당 안된다”

자살을 시도하려 마약을 복용했다면 그것은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밤 부산 동래구에서 히로뽕 10g을 넘겨주기 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그러나 히로뽕 매매 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상태였고 A씨는 경찰에 저항하며 자살하기 위해 히로뽕 10g을 전부 복용했다가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대법원은 “자살을 위한 목적으로 히로뽕을 다량 복용한 행위는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스

www.gpang.com

특별한 '진료실명' '방광염' '인위적 불임' 치료

# 일중한의원

일중한의원

1. 전문진료  
2. 투약없는 치료  
3. 투약없는 치료  
4. 투약없는 치료  
5. 투약없는 치료

062) 676-1075

www.julyaia.com

# i엘리시아 (iElysia)

1. 투약없는 치료  
2. 투약없는 치료  
3. 투약없는 치료  
4. 투약없는 치료  
5. 투약없는 치료

062) 671-1199